

# 국립목포대, 해외연수 확대...글로벌 인재 양성

국립목포대학교가 학생들의 해외연수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목포대에 따르면 최근 대학 70주년 기념관 전시실에서 2025학년도 동계 해외 장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학년도 동계 방학 중 해외 장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전시하고, 관람객 투표를 심사하여 반영하는 참여형 전시로 진행됐다.

국제협력처는 전시 종료 후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해외 장학연수는 해외 어학연수, 해외

문화 자율연수, 교원 인솔 전공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프로그램 결과를 담은 포스터와 활동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동계 해외 장학연수에는 총 198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28팀의 결과 포스터와 33개의 활동 영상이 제작됐다. 해당 영상은 행사장과 국립목포대 국제협력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지난 6일 결과 포스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 심사가 진행됐다. 각 팀 대표 1인이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최종 평가는 발표·심사 결과 80%, 현장 투표 10%, 온라인 투표 10%를 합산해 이뤄진다. 국제협력처는 프로그램별로 우수 3개팀을 선정해 총장상(대상, 최



국립목포대학교 국제협력처는 최근 대학 70주년기념관 전시실에서 '2025학년도 동계 해외 장학연수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우수상, 우수상)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

홍신기 목포대 국제협력처장은 "이번 성과발표회는 단순한 해외 체류 경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과 연계해 심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과물 제작과 발표 과정을 통해 연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는 '재학 중 원하면 누구나 해외로!'라는 슬로건 아래 해외 장학연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국제협력처는 올해도 하계 방학 기간 200여명 이상의 학생을 해외로 파견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유채꽃밭 걸으며 봄 정취 만끽해요 최근 완도 청산도에서 '2026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개막한 가운데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핀 슬로길을 걸으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을 주제로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제공=완도군청

## 강진, 전선 지중화로 '쾌적한 도시' 탈바꿈

보행 안전·경관 개선...주거·상업지역 동반 효과

강진군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강진을 중앙로 일원 약 0.55km 구간에 대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 구간은 강진을 갑진갈비 앞에서 카페메네-영랑맛집-동서빌라 앞까지 이어지는 중심 상권 지역으로, 도로변에 난립해 있는 전선주와 공중 전선,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약 25억원 규모로, 한전 50% (약 12억5000만원), 강진군 50% (약 12억5000만원)를 분담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3월 한전과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선주 철거 등 선형 작업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앙로 일대 상업지

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선 지중화는 태풍·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선 사고 위험을 줄여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중화 사업은 단순한 전선 정비를 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

## '영암 한우 김밥' 신메뉴 선보인다

군, '암쌈김밥'과 4종 개발...왕인문화축제서 첫 공개

영암군이 분식 프랜차이즈 암쌈김밥과 협력해 영암 한우를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이며 지역 농축산물의 전국 시장 확대에 나섰다.

군은 암쌈김밥과 협약을 통해 총 4종의 '영암 한우 메뉴'를 개발했으며, 이 중 '한우 소보로김밥'과 '한우 계란말이김밥' 2종을 왕인문화축제 현장에서 먼저

공개한다. 신메뉴는 영암 한우를 활용해 깊은 풍미와 든든한 한 끼를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김밥과 차별화된 메뉴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암쌈김밥 판매 부스는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12일까지 운영되며, 신메뉴는 4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정식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영암군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지난해 암쌈김밥과 협업한 영암쌀 메뉴로 약 8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한우 메뉴 역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앞으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진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 수립

적극 활동 세수 확보 총력

진도군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세금에 대해 체계적인 징수를 추진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도군은 이월체납액 10억 4800만원의 56.7%인 5억9100만원을

해의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하고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한편,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발굴하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관

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한편,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에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직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정태영 스몰액션 대표 페어암, 가방으로 재탄생 해양쓰레기 자원 순환



오금석 (주)야생인더비 대표 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신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등 리스크 직격탄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